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Executive Summary*

### □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과 시사점

#### ■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거시경제 동향)**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모두 개선세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6년 하반기 저점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7년 3분기에 전기대비 1.4%(전년동기대비 3.6%)를 기록했다.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경기 동향)**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재고-출하로 판단한 산업 경기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4분기 둔화되었지만 3/4분기에 반등했고,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2017년 상반기 2%대 중반에서 3분기에는 3%대로 확대되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감소세였던 재고는 3/4분기에 증가하면서 확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과 전망

2018년 세계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국제 교역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국내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출 증가에 힘입어 ICT 산업 경기는 호황 국면으로, 자동차와 철강, 기계 산업 경기는 회복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간 수주 부진의 영향을 받는 조선업은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은 과잉공급 및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의 이유로, 석유 화학 산업은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원가 경쟁력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 국면이 전망된다.

**(호황-ICT) (ICT)** 2017년 전반적으로 생산 및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고 있다. 스마트폰 부문은 부진하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성장세가 ICT 경기를 견인하고 있다. **2018년 ICT 산업**은 세계 경기 성장세 및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인한 ICT 수요 확대 등으로 생산 및 수출 증가는 지속될 것이다. 반도체 부문 중심의 호황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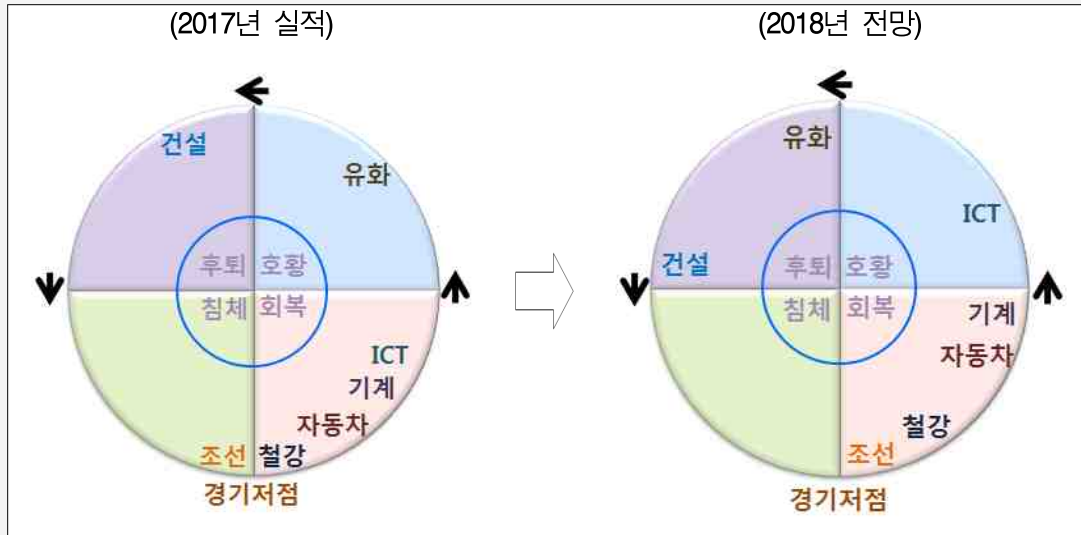
**(회복-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2017년 자동차 산업은 2016년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와 해외 수요 확대에 의한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자동차 산업**은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의 동반 성장세, 신차효과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통상마찰 리스크와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국내 민간소비가 다소 증가하는 플러스 효과와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 냉각 가능성에 따르는 역자산 효과 등의 마이너스 효과가 서로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면서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철강)** 2017년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 및 철강재 수급 개선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은 회복되지만, 내수 부문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철강 산업**은 국내 건설 및 설비 투자 둔화에 따르는 미약한 내수 수요 회복의 영향이 회복세인 수출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미약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선)** 2017년 조선업은 선박 건조 시장 부진 및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아직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8년 조선업**은 신규 수주는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대비 미약하며 건조 단가도 2017년도보다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기계)** 2017년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생산과 출하, 수출이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입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2018년 기계 산업**은 국내 설비투자 둔화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및 해외 수요 확대에 생산이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대외 불확실성 축소 및 세계 경기 성장세 지속에 따르는 기계수주 호조가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국내 산업 구조조정 및 SOC 투자 둔화 등은 내수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후퇴- 건설, 석유화학) (건설)** 2017년 건설업은 건설기성액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수주액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후퇴를 예고하는 모습이다. **2018년 건설업**은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선행지표들의 둔화되는 흐름과 SOC 예산 감소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민간 부문 수주액 모두 감소하는 등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2017년에는 석유화학 부문의 글로벌 공급 부족 및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 증가 및 생산 확대에 이어져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지만 중국 성장 둔화, 원가 경쟁력 악화 등의 요인으로 소폭 둔화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자급률 개선, 중국 시장에서 중동산 저가 범용 제품과의 경

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시사점

2018년 예상되는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경기 회복 경로를 통한 전체 산업 경기 확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시장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산업 경기 전반의 회복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 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경기 냉각 우려가 있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건설경기 연속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산업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성장 산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은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1. 거시경제 및 주요 산업경기 동향

### (1)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세 확대) 2017년 3/4분기 들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모두 개선세를 유지

- 2017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4%(전년동기대비 3.6%)로 2016년 하반기 저점 이후 상승세

- 3/4분기 부문별 증가율은 수출이 전기대비 6.1%를 기록하면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정부소비(1.1% → 2.3%)와 건설투자(0.3% → 1.5%) 증가율이 확대
- 다만 GDP(국내총생산)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소폭 하락했으며(1.0% → 0.7%),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크게 하락(5.2% → 0.5%)

-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모두 기준치를 상회하는 가운데 개선세 유지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5~7월 이후 상승세
- 한편 향후 경기의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9월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승세 유지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전기비는 계절조정자료 기준.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



자료 : 통계청.

(2) 주요 산업경기 동향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활동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며 산업 경기는 확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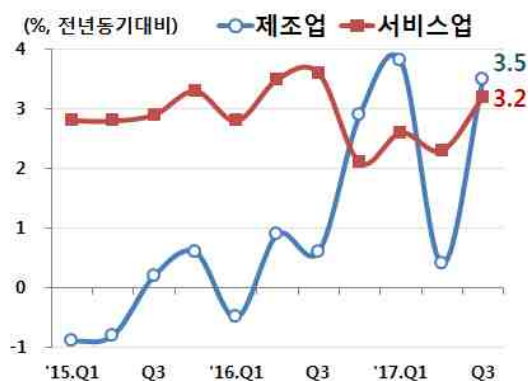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은 24분기 큰 폭의 둔화에서 반등하면서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은 회복세가 강화

- 제조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7년 1/4분기 3.8%, 2/4분기 0.4%로 둔화되었지만 3분기에는 3.5%로 반등
-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전년동기대비)은 2017년 1/4~2/4분기 2%대 중반에서 3/4분기 3.2%로 상승

- 2017년 제조업 출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고는 34분기에 증가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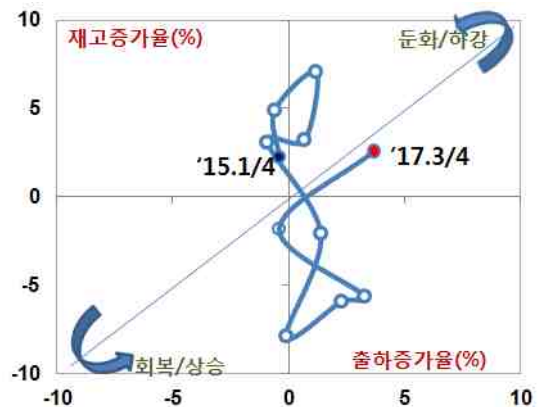
- 제조업 출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7년 1/4분기 3.3%, 2/4분기 -0.4%, 3/4분기 3.7%로 전반적으로 증가세 유지
- 한편 제조업 재고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2016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보였지만 2017년 3/4분기 현재 2.6%를 기록하며 반등
- 3/4분기 출하 및 재고가 모두 증가하면서 확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으로 판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1) 전년동기대비.  
 2) 서비스업 생산은 불변지수 기준.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주 : 전년동기대비.

## 2.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 2018년 세계 경제 성장세 유지 및 국제 교역 회복세 지속 등은 국내 수출 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수출 증가에 힘입어 ICT 산업 경기는 호황 국면, 그리고 자동차, 철강, 기계 산업의 경기는 회복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장기간 수주 부진의 영향을 받는 조선업은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공급과잉 및 대출 규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석유화학은 둔화 국면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

### ○ (호황) ICT

- ICT: 여타 기기들의 성장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 주도의 ICT 제조업 성장이 지속되며 호황 전망

### ○ (회복)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 자동차: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세, 신차효과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통상마찰 리스크,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고 내수는 소폭 증가 전망

- 철강: 글로벌 과잉공급이 일부 해소되면서 수출 경기의 회복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지속으로 미약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조선: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 해소 등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물량의 미약한 증가 및 수출 소폭 감소 등 전반적으로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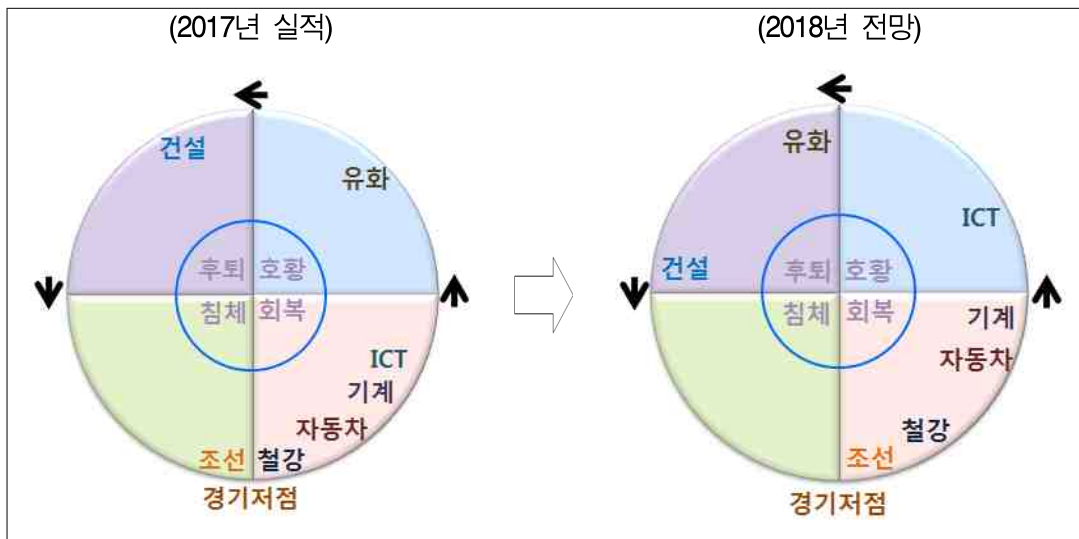


- 기계: 국내 설비투자 둔화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및 해외 수요 확대에 생산 증가 등 회복세 유지 전망

○ (후퇴) 건설, 석유화학

- 건설: SOC 예산 축소로 공공부문 수주가 줄어들고 건축 부문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 부문 수주도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 지속 전망
-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으나 중국 성장 둔화, 내수 정체, 원가 경쟁력 악화 등의 요인으로 경기 소폭 둔화 전망

< 주요 산업의 경기 국면 >



### 3. 2018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 ① 건설업

SOC 예산 축소로 공공부문 수주가 줄어들고 건축부문 부동산 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부문 수주도 둔화세 지속 전망

○ (2017년 경기 동향) 건설기성액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건설수주액은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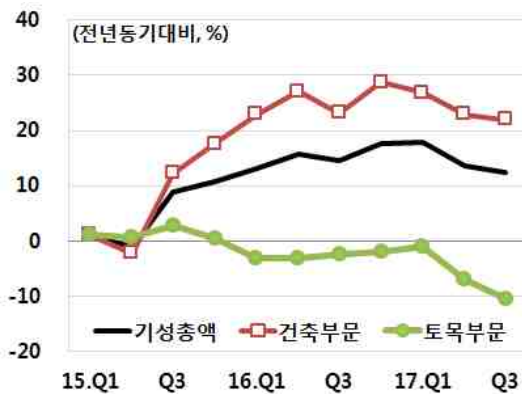
- (건설기성) 2015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온 건설기성액은 2017년 이후 증가세가 소폭 둔화

- 건설기성액은 2015년 중반 이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2016년까지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12.5%로 증가세가 둔화됨
- 부문별로는 건축기성액 증가율이 2017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22.0%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토목기성액은 -10.4%로 감소세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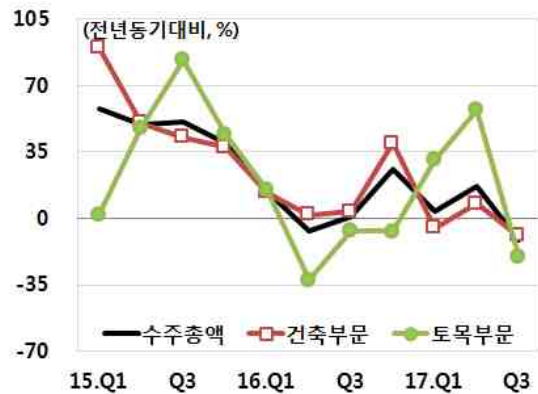
- (건설수주) 건설수주액은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7년 3/4분기 누적 기준 수주액은 사상 최대 수준

- 건설수주액은 2017년 1/4~3/4분기간 101.3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여 증가세 자체는 둔화되었지만 수주액은 사상 최대 수준임
- 부문별로는 건축수주액이 2017년 1/4~3/4분기간 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여 감소한 반면, 토목수주액은 동기간 18.9% 증가세로 전환함

< 공종별 건설기성액 증감률 >



< 공종별 건설수주액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주1)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주2) 건설기성액은 불변금액, 건설수주액은 경상금액 기준.

- (2018년 전망) SOC 예산 감소와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공공·민간 부문 수주액 모두 감소 예상
  - (공공·토목) 2017년 정부의 SOC 예산 감소 등으로 공공·토목부문 수주액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2018년 SOC 예산이 전년대비 20.0% 감소한 17.7조 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과 서민 공공주택 건설 확대 등으로 공공·토목수주액 감소가 다소 완화될 수 있음
  - (민간·건축)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대출 규제,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 축소 등으로 민간·건축 부문 수주액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부동산거래 및 보유 규제 강화, 가계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예상되어 주택시장 수요는 위축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되고 2015~2016년에 급증한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량도 향후 수주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2018년 민간·건축 부문 수주액은 둔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주액 자체는 평년 수준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 전망 (건설수주액 기준) >

구 분		2016	2017(E)	2018(E)
주체별	공 공 (조 원)	34.0 ( 19%)	36.0 ( 6%)	30.6 (△15%)
	민 간 (조 원)	107.7 ( 4%)	104.5 (△ 3%)	86.3 (△17%)
공종별	토 목 (조 원)	27.2 (△16%)	28.9 ( 6%)	24.0 (△17%)
	건 축 (조 원)	114.5 ( 15%)	111.6 (△ 3%)	92.7 (△17%)
전 체 (조 원)		141.7 ( 8%)	140.5 (△ 1%)	116.8 (△17%)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국내 외국기관 및 민자 실적은 제외.

- (주요 현안) 2018년 건설 산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수익형 부동산시장 위축, 해외건설시장 리밸런싱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도시재생 활성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활성화
    - 정부는 전국 낙후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국민 생활환경 개선 작업을 활성화 할 계획임
    - 시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히 주거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 재건축시장의 경우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sup>1)</sup>
  - (수익형 부동산시장 위축) 최근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확대로 공급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
    - 최근 저성장, 저금리기조 지속 등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신축 수익형 부동산으로의 투자가 증가함
    - 지역에 따라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투자 대비 수익이 저조한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예상되어 투자수익률과 시장금리 간 스프레드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레버리지가 높은 부동산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해외건설시장 리밸런싱) 해외건설수주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시점
    - 2016년을 저점으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수주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차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2017년 9월 기준 중동 지역이 전체 해외건설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2015년 35.8%, 2016년 37.9%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건설수주 비중이 감소함
    - 한편 국내 건설경기 하락 우려 등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이 필요한 시점임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까지 누진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으로 조합원1인당 평균이익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함.

② ICT 제조업

여타 기기들의 성장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 주도의 ICT 제조업 성장이 지속되며 호황 전망

○ (2017년 경기 동향) 반도체 부문의 강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생산 및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회복세 포착

- (생산 및 재고·출하) 2/4분기 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생산 및 출하는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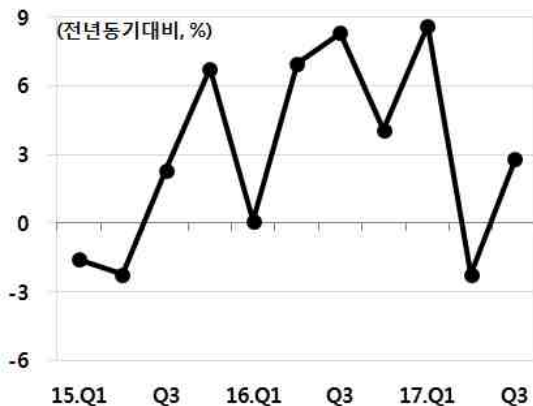
- 생산 증감률은 1/4분기 8.6%에서 2/4분기 -2.2%로 하락했으나 3/4분기 2.8%로 반등하는 모습이며 출하 증가율 역시 3/4분기에 증가세로 반등
- 재고 감소율이 완화되고 있어 산업 내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모습

- (부문별 경기) 스마트폰 부문의 부진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성장세가 전반적인 ICT경기를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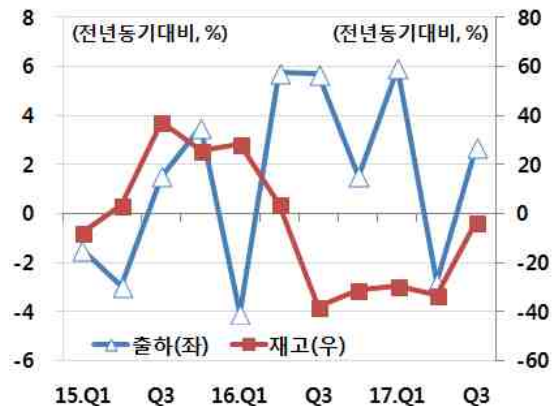
- 반도체: 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수요 증가, 단가 안정세 등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성장세 확대
- 스마트폰: 글로벌 경쟁 심화, 해외 생산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 지속
- 디스플레이: LCD 패널 단가 안정, 프리미엄 제품의 OLED 패널 수요 증가로 성장세 유지

< ICT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8년 전망) 여타 기기들의 성장세 정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 주도의 ICT 제조업 성장이 지속되며 호황 전망
  - (경기 여건) 글로벌 경기 회복세,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등 시장 여건 개선
    -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ICT 수요 증가 기대
    - 또한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무인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신규 시장 성장은 ICT 신규 수요 발생으로 연결
  - (생산, 수출) 생산 증가세는 2017년과 유사하겠으며, 수출 증가폭은 둔화
    - 글로벌 수요 확대 지속으로 생산과 수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수출은 전년대비 기저효과로 증가폭 둔화
  - (품목별) 여타 기기들의 성장세가 정체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은 호황 지속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초과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성장세 지속
    - 스마트폰 : 선진국 교체 수요, 신흥국 보급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거점화로 부진 지속
    - 디스플레이 패널: 중소형 OLED 패널의 성장세는 지속되겠지만 LCD 가격 하락세로 전반적인 시장 성장세 제한

< ICT제조업 전망 >

구 분	2016	2017(E)	2018(E)
생 산 (조 원)	306 (△6%)	319 (4%)	330 (3%)
수 출 (억 달러)	1,625 (△6%)	1,933 (19%)	2,015 (4%)
수 입 (억 달러)	898 (△2%)	1,005 (12%)	1,057 (5%)

자료 : 잠정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ICT제조업은 정보통신방송기기 품목을 의미.

- (주요 현안) 2018년 ICT산업은 AI 플랫폼 경쟁, 대화형 스마트홈 시대 개막, 카메라 모듈 혁신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AI 플랫폼 경쟁) 인공지능(AI) 생태계 선점을 위한 국내외 IT 업체의 AI 플랫폼 개발 경쟁이 본격화
    - 인공지능(AI)이 향후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일으킬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은 AI 생태계 선점을 위해 경쟁
    - 아마존의 '알렉사',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의 '시리'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각 사의 단말기와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
    - 국내 업체 역시 한국어를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출시하고 다양한 제휴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 (대화형 스마트홈 시대 개막) 스마트홈 가전 시장이 음성인식 기반의 AI 기기와 연동되는 대화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전환기 도래
    - 과거 스마트홈 기술이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가전제품을 조작하는 데 그쳤다면, 음성인식 AI 기능과 결합된 스마트홈 가전은 사용자와의 대화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
    - 특히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음성으로 제어하는 스피커 시장이 스마트홈 구축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
    - 향후 시장 주도권은 실생활에서 소비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대중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
  - (카메라 모듈 혁신) 사물 촬영에서 사물 인식 중심의 카메라 모듈의 혁신·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기존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 카메라 모듈의 사물 인식 기능이 발전하면서 단순 촬영 기능을 넘어 스마트 기기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주체적 역할로 부상
    - 가장 먼저 보편화되고 있는 기술은 '듀얼 카메라'로 스마트 기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카메라 모듈을 장착하여 각 렌즈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한 피사체를 촬영하기 때문에 3D 입체 인식이 가능
    - 이 외에도 AR, VR, 모션 인식, 360도 촬영 등 하드웨어적 혁신 기술이 논의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기존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

③ 자동차산업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세, 신차효과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통상마찰 리스크,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고 내수는 소폭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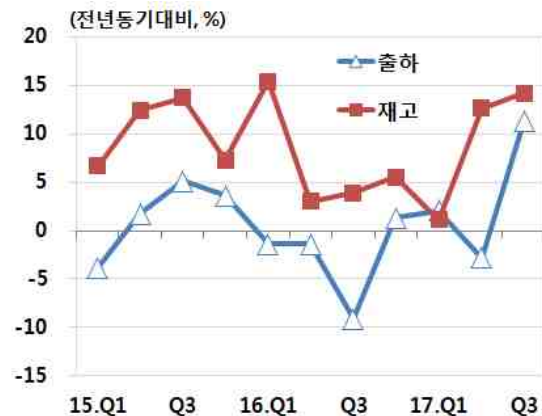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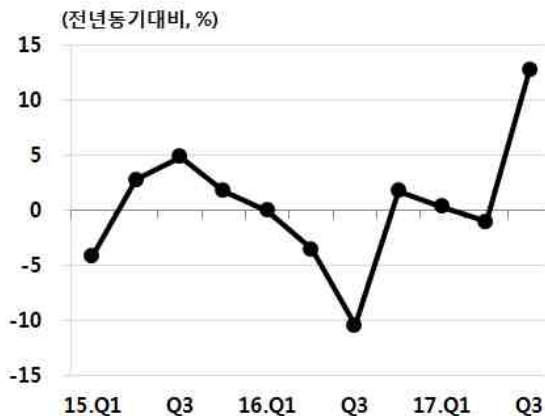
○ (2017년 경기 동향) 자동차산업은 2016년도 파업에 따른 기저효과와 해외 수요 확대에 의한 수출 호조 등으로 회복 국면

- (생산 및 재고·출하) 기저효과, 수출 증대로 인해 자동차 생산, 출하 지수의 증가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고지수 증가율도 상승세 유지
  - 자동차 제조업의 생산지수와 출하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각각 1/4분기에 0.4%, 2.1%에서 3/4분기 12.8%, 11.3%로 큰 폭으로 상승함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가격 할인 행사 등으로 내수 부문도 다소 개선되었고 경기 회복에 따라 재고지수는 1/4분기 1.1%에서 3/4분기에 14.2%로 상승함
- (수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수요 확대, 국산차 품질 경쟁력 향상, 친환경차를 비롯한 중소형 SUV의 수출 호조 등으로 수출 증가폭 확대
  - 자동차 수출 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4분기 -3.8%에서 3/4분기 21.0%로 확대됨<sup>2)</sup>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 HS 코드 기준으로 분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2018년 전망)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성장세, 신차효과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통상마찰 리스크, 글로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고 내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
- (수출 증가세 유지) 세계 경기 회복세, 신차 출시 효과 등으로 2018년 수출과 생산 증가율이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 기저효과로 인한 對중국 수출 개선이 기대되며,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도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급모델 출시, 친환경 자동차 등 신차 출시 효과로 해외 수요 확대가 예상됨
  - 다만, 한미 FTA 재협상 여부, 글로벌 경쟁업체의 신차 출시 및 기술 경쟁 심화 등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함
- (내수 판매 증가)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지만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 예상
  -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 및 고용 여건 개선 등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으로 민간소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다만,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냉각 가능성에 따른 역자산 효과로 소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수입 자동차 업체의 신차 효과와 기저효과 등에 따라 자동차 수입은 증가세로 전환 예상됨

< 자동차산업 전망 >

구 분	2016	2017(E)	2018(E)
생 산 (만 대)	423 (△7.2%)	442 (4.6%)	467 (5.5%)
내 수 (만 대)	160 (0.7%)	162 (1.2%)	164 (1.5%)
수 출 (만 대)	262 (△11.9%)	276 (5.3%)	295 (7.0%)
수 입 (만 대)	31 (△8.8%)	29 (△5.2)	32 (10.3%)

자료 : 실적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내수는 국산차 출고 기준, 수출·수입은 통관 기준.

○ (주요 현안) 2018년 자동차산업은 정보 수집하는 자동차, 유통 채널의 변화, 수입차 시장 구조 재편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정보 수집하는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서 자동차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지도, 승객 등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빅데이터를 생성할 전망<sup>3)</sup>
-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포테이먼트(Infotainment) 활성화, 사용자 기반 차량보험(Usage-based insurance) 활성화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유통 채널 변화)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 자동차 판매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분위기로 기존 딜러망과 마케팅 전략이 재편될 전망

- 해외에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이미 온라인 판매를 실시하였고, 자동차업체 이외에도 아마존 등이 자동차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고 상황임
- 자동차 업체들은 딜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최근 11번가, 카카오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부터 국산차의 홈쇼핑 판매가 허용되지만, 아직 업계 대응이 미온적이고, 특히 영업망 노조 반발 등으로 온라인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도 상존

- (수입차 시장 구조 재편) '디젤게이트'로 판매 중단에 들어갔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브랜드 12개 주력 디젤 차종의 배출가스·소음 신규 인증을 최근 통과시킴
- 그러나 국토부와 산업부 인증철자, 재고 물량 처리, 소송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나 늦어도 2018년초에 판매 재개 가능성이 큼
-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시장 재진입은 판매 중단으로 그동안 반사이익을 얻었던 경쟁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

3) Intel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는 하루에 4 TB 데이터를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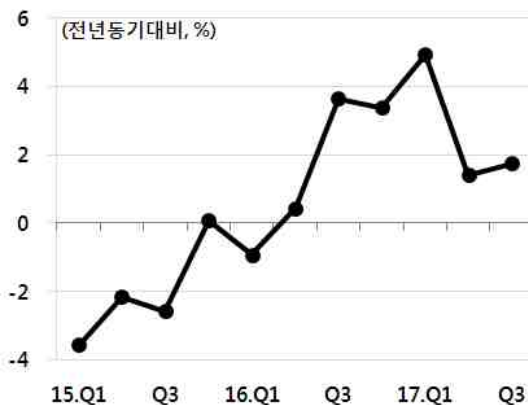
④ 철강산업

글로벌 과잉공급이 일부 해소되면서 수출 경기의 회복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지속으로 미약한 회복세 지속 전망

- (2017년 경기 동향)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은 회복하지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2/4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
  - (생산 및 재고·출하) 2016년 2/4분기 이후의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7년 2/4분기 이후 회복세가 둔화
    - 철강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6년 2/4분기부터 플러스대로 회복되며 불황 국면을 벗어났으나 2017년 2분기 이후 급락
    -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가율로는 다소 부진했던 2/4분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16년 이후의 회복세가 지속됨
  - (수출) 중국 등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수급 개선으로 수출량 증가 및 수출단가 상승
    - 2017년 3/4분기 누적 철강 수출은 물량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평균 수출단가 상승으로 금액기준으로는 24.7% 증가<sup>4)</sup>
    - 중국의 철강 설비 감축에 따른 철강재 수급 개선으로 평균 수출단가는 상승

< 1차 철강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재고, 출하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4) MTI코드 61 기준, 한국무역협회.

- (2018년 전망) 글로벌 과잉공급이 일부 해소되면서 수출 경기의 회복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지속으로 미약한 회복세 지속 전망
- (수요 소폭 증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둔화로 내수 수요의 회복은 미진할 것으로 보이나 수출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철강 내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경기 개선으로 감소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
  -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에 따르는 생산 시설 감축의 영향으로 수출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한미 FTA 재협상 등 통상 부문의 하방리스크는 상존함
- (공급 소폭 증가) 수입은 감소하지만 국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총공급 증가하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철강 설비 감축 및 친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철강재의 주요 원자재인 철광석과 유연탄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철강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철강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으로 글로벌 철강 초과공급이 일부 해소되며 수입은 감소할 전망

< 철강산업 전망 >

구 분	2016	2017(E)	2018(E)
총수요 (만 톤)	8,805 (0.8%)	8,859 (0.6%)	8,897 (0.4%)
내수 (만 톤)	5,708 (2.3%)	5,611 (△1.7%)	5,577 (△0.6%)
수출 (만 톤)	3,097 (△1.8)	3,249 (4.9%)	3,320 (2.2%)
총공급 (만 톤)	9,802 (1.9%)	9,783 (△0.2%)	9,839 (0.6%)
생산 (만 톤)	7,431 (0.3%)	7,654 (3.0%)	7,761 (1.4%)
수입 (만 톤)	2,372 (7.5%)	2,130 (△10.2%)	2,079 (△2.4)

자료 : 실적치는 한국철강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주2) 수입량에는 핫코일, 반제품 등 철강재 소재 포함.

- (주요 현안) 2018년 철강산업은 저탄소·친환경 정책 확산, 한미 FTA 재협상, 철강 전자상거래 확산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저탄소·친환경 정책 확산) 세계적으로 저탄소·친환경 정책이 확산되면서 환경 규제, 친환경 산업 등이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탈석탄 등 친환경 기조로 전환되면서 철강 업계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중국은 19차 당대회에서 환경문제의 개선이 강조되었으며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강 생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ESS, 전기차 등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관련 소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기회 요인으로도 작용
  - (미국 철강 시장 보호 강화 우려) 한미 FTA 재협상에서 철강이 주요 쟁점 품목으로 부각되면서 미국 시장지배력 약화 가능성이 대두
    -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집중된 철강 부문의 관세율 조정 등 미국 시장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재협상이 한국에 불리하게 추진 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등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철강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전방 산업에 대한 미국의 시장 보호 기조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 산업에는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철강 전자상거래 확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철강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철강 유통구조가 변화할 전망
    -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철강 거래에 있어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
    -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유통비용, 광고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⑤ 석유화학산업

글로벌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으나 중국 성장 둔화, 내수 정체, 원가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경기 소폭 둔화 전망

○ (2017년 경기 동향) 글로벌 공급 부족,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가 생산 확대로 이어져 경기 호황이 지속

- (생산 및 재고·출하) 2/4분기 이후 생산, 출하지수의 증가율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재고가 감소하는 등 개선세

- 생산지수 증가율은 2017년 1/4분기 5.2%까지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2/4분기 2.0%로 둔화 후 3/4분기 4.5%로 소폭 상승
- 재고 증가율은 2/4분기 이후 둔화되고, 출하 증가율은 소폭 하락 후 반등하는 등 개선세가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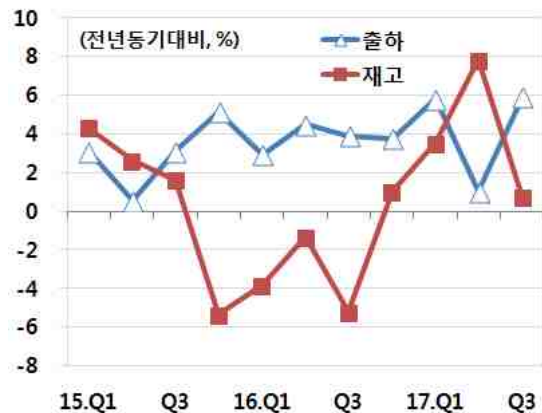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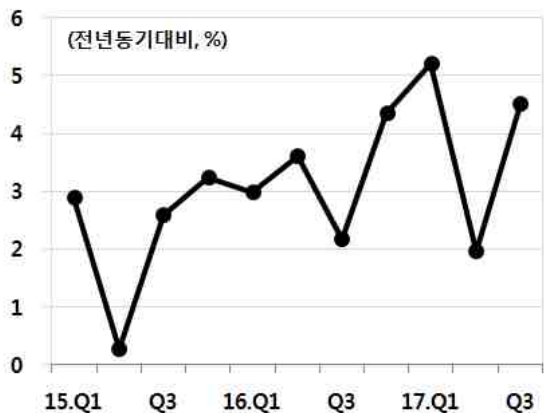
- (수출)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

- 미국, 유럽 대형사의 산업시설 피해로 인한 글로벌 공급 부족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17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26.3%(누적기준 약 336억 달러) 증가
- 2017년 3/4분기 누적기준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27.2%(누적기준 약 153억 달러) 증가하며 수출 증가세를 주도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18년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으나 중국 성장 둔화, 내수 정체, 원가 경쟁력 악화 등의 요인으로 소폭 둔화 전망
  - (생산) 신규 물량 공급의 확대와 국제유가의 점진적인 상승으로 인해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물량 공급이 확대되고 국제유가는 점진적인 상승<sup>5)</sup>이 전망되는 등 하방 리스크 요인이 부상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기반의 나프타를 원재료로 활용함에 따라 유가의 점진적 상승은 원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수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겠으나 중국 성장 둔화로 증가폭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제 2의 수출 시장인 미국, 인도 등의 경기 회복은 수출 호조세로 작용하겠으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의 성장을 둔화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특히 중국 시장에서 중동산 저가 범용제품과의 경쟁 심화, 중국 자급률 개선 등으로 수출 확대는 제한적일 전망
  - (내수) 국내 경기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내 경기의 제한적 회복으로 건설 등 석유화학의 전방산업 수요 증대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석유화학산업 전망 >

구 분	2016	2017(E)	2018(E)
생 산 (만 톤)	2,108 ( 0%)	2,235 ( 6%)	2,257 ( 1%)
수 출 (만 톤)	1,077 (Δ6%)	1,120 ( 4%)	1,143 ( 2%)
수 입 (만 톤)	92 (Δ6%)	95 ( 3%)	96 ( 1%)
내 수 (만 톤)	1,123 ( 7%)	1,190 ( 6%)	1,178 (Δ1%)

자료 : 실적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석유화학 산업 전망은 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합으로 산출.

5)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October 11, 2017. 2017년 WTI(49.69\$/배럴), Brent(52.43\$/배럴), 2018년 WTI(50.57\$/배럴), Brent(54.07\$/배럴)로 전망.

- (주요 현안) 2018년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과잉공급 우려, 이종 산업간 M&A 확산,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
  - (글로벌 과잉공급 우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탈규제 정책을 통한 신설 프로젝트 추진은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확대될 우려
    -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America First Energy Plan)'의 일환으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 정책 수립
    - 유가 대비 원가 경쟁력이 상승한 천연가스(ECC : Ethane Cracking Center) 기반의 대형 석유화학 생산 설비가 2018년부터 증설 완공 예정<sup>6)</sup>
    - 세계 1위 생산능력<sup>7)</sup>을 보유한 미국의 신증설 물량 증가로 글로벌 과잉공급 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제품 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우려됨
  - (이종 산업간 M&A 확산)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바이오, 경량 소재 산업 등과의 융합이 확산될 전망
    - 미국, 유럽 등 석유화학 중심국들은 범용제품을 축소하고, 스페셜티(Specialty) 제품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에 주력
    - 세계 최대사인 다우케미컬(Dow Chemical)과 듀폰(DuPont)은 2017년 합병 완료 후 농업, 소재과학, 스페셜티 등 3개 부문으로 사업 분야를 재편
    - 건강,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식량, 신소재 개발 등의 분야까지 산업간 융합이 확장되고 있고, 신제품 개발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정부가 R&D투자를 통한 고부가·고기능 소재기술 개발을 지원함에 따라 향후 첨단정밀화학 분야에서의 성장이 기대
    - 중국의 자급률 상승, 범용제품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석유화학제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 특히 정부는 정밀, 친환경 화학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충남 대산에 첨단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6) 외신보도 종합 Exxon Mobil 150만톤, Formosa 120만톤, Sasol 150만톤, Lotte-Axiall 100만톤 증설 예정.  
 7) 2016년 세계 4대 에틸렌(Ethylene) 생산국(전체 생산량 대비 비중, %) : 미국(17.7%), 중국(13.6%), 사우디(10.1%), 한국(5.3%).



⑥ 조선업

글로벌 물동량 증가, 국제유가 상승, 선박 공급과잉 해소 등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 물량의 미약한 증가 및 수출 소폭 감소 등 미약한 회복세 전망

○ (2017년 경기 동향) 조선업은 선박 건조 시장 부진, 해양플랜트 발주 위축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 이전 단계

- (선박 생산) 조선업은 2013년부터 시작된 생산 감소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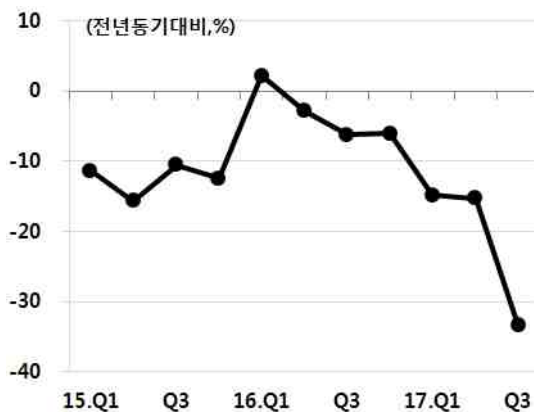
· 조선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는 감소세가 이어지며 2017년 3분기 기준 -33.4%를 기록하고 있음

- (선박 수주)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수주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신조선가지수는 하락세 지속

· 신규수주량은 2017년 9월까지 누적으로 5백만 CGT<sup>8)</sup>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약 295% 늘어났으나 2016년 최악의 수주 가뭄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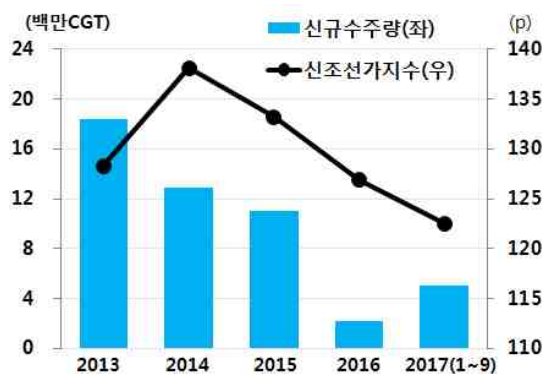
· Clarkson 신조선가지수는 2014년 138p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며 2017년 123p까지 하락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신규수주량 및 신조선가지수>



자료 : Clarkson.

8)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 (Compensated Gross Tonnage).

- (2018년 전망) 2018년 신규 수주는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절대적인 수준은 과거 대비 미약하며 건조 단가는 2017년도보다 소폭 증가
  - (신규 수주 증가) 2018년 신규 수주량은 2016년 이후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과거와 비교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
    - 2018년 신규 수주량은 글로벌 발주량 증가 영향으로 2017년보다 증가한 10.0백만 CGT가 예상됨
    - 다만 2013년(18.4백만 CGT), 2014년(12.7백만 CGT), 2015년(10.7백만 CGT)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건조 단가 개선) 선박 건조 단가는 2018년에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되는 모습 예상
    - 2017년까지 이어지던 선박의 공급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조선사 간 경쟁이 완화
    - 건조 단가는 2017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나 금융위기 이전 호황기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수출 소폭 감소) 선박 수출은 2018년에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2016년과 2017년 부진하였던 선박 수주 영향으로 2018년 선박 수출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조선업 전망 >

구 분	2016	2017(E)	2018(E)
신규수주량 (백만 CGT)	2.2 (△80.3%)	8.6 (300.0%)	10.0 (15.6%)
신조선가지수 (p)	127 (△6p)	124 (△3p)	128 (4p)
수출규모 (억 달러)	343 (△14.6%)	387 (13.0%)	368 (△5.0%)

자료 : 신규수주량과 신조선가지수는 Clarkson, 수출규모는 전체 선박수출 기준,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주요 현안) 2018년 조선업은 업황 턴어라운드와 원년,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 중국 조선업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조선업 턴어라운드와 원년) 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구조조정, 수주절벽 등을 경험한 조선업은 2018년부터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기대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의 양호한 성장으로 해상 물동량이 늘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회복,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 이행 등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완화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플랜트 실적 개선이 기대됨
  - (노후 선박 교체 수요 증가) 과거 발주가 급증한 시기의 선박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환경규제 등이 강화되어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
    - 선박 발주가 급증한 시기인 2003년 이후 건조된 선박들이 점차 노후화되며 이들에 대한 교체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SA)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을 낮추는 규제를 통과시켰으며 선주들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선박 개조 작업을 통해 탈황설비를 설치하거나 노후 선박을 폐기하고 탈황설비를 갖춘 신규 선박을 건조할 계획
  - (중국의 고부가가치화 전략) 중국 조선업은 조선산업의 제조강국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구
    - 중국 조선업의 경우 과거에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저가수주 전략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초대형·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를 따내고 있음
    - 중국은 2016년 조선산업의 제조강국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해양 공정설비, 고도기술 선박 영역에서 한국, 일본 등을 추월하겠다는 계획
    - 국영조선소들을 중심으로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조선소가 중소형 조선소를 인수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해양 엔지니어링 제품,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을 전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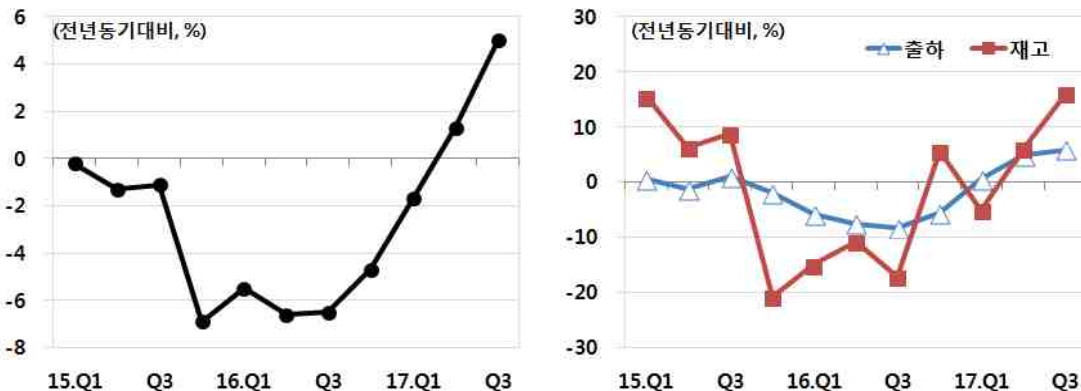
⑦ 기계산업

국내 설비투자 둔화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및 해외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 등 회복세 유지 전망

○ (2017년 경기 동향)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생산 및 출하, 수출이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생산 및 재고·출하) 생산 및 재고, 출하가 모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대내외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반기계 생산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됨
  - 일반기계의 출하·재고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후 증가세가 확대되며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함
- (수출입) 대내외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로 수출입 모두 크게 증가
  - 일반기계의 수출은 2017년 8월까지 누적 기준 전년동기간대비 17% 증가, 수입은 38% 증가하며 수출입이 모두 크게 증가함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해외 설비투자 수요로 수출이 증가함
  - 국내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호조세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의 수요가 늘며 수입 증가를 견인함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의 생산, 출하, 재고 변동 >  
 (생산지수 증감률) (출하 및 재고지수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 (2018년 전망) 국내 설비투자 둔화 등의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및 해외 수요 확대로 생산 증가 등 회복세 유지 전망
  - (생산 증가) 글로벌 경기 회복 및 해외 수요 확대 지속으로 인한 설비투자 수요는 확대되면서 일반기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르는 기계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기계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인프라투자 확대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따르는 투자 수요 증가, 신흥국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 기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국내 산업 구조조정, SOC투자 둔화 등이 내수 확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수출 증가) 경기 회복에 따르는 선진국 투자 수요 증가 및 신흥국의 투자 확대로 일반기계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산업생산 회복세 및 미국의 인프라투자 계획 등으로 해외 기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기계 수출이 늘어날 전망
    -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 정부의 투자 확대 정책으로 인한 설비투자 수요 증가세 지속으로 일반기계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자국산 설비 대체 등 제약 요인이 존재함
  - (수입 증가세 둔화) 국내 설비투자 둔화로 수입 증가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

< 기계산업 전망 >

구 분	2016	2017(E)	2018(E)
생 산 (조 원)	102 (Δ2%)	106 ( 4%)	109 ( 3%)
수 출 (억 달러)	420 (Δ6%)	471 ( 12%)	502 ( 7%)
수 입 (억 달러)	325 (Δ3%)	394 ( 21%)	413 ( 5%)

자료 : 실적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주1) 일반기계 기준이며,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2) 2011년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의 품목분류 개편으로 과거 수치와 불일치.

- (주요 현안) 2018년 기계산업은 지능형 기계 수요 확대, 친환경 기계설비 확산, 중국과 첨단기계 기술 격차 축소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지능형 기계 개발 가속)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진보가 융합된 지능형 기계 수요에 따라 지능형 기계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
    - 내구성, 안전성 등 기계분야의 전통적인 품질 개선뿐만 아니라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제조가 기계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 특히 최근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기계 설비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지능형 기계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원천기술 개발 노력과 생산기계, 설비의 고성능·고효율화 등 경쟁력 확보 경쟁이 예상됨
  - (친환경 기계설비 확산) 환경규제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기계가 확산될 전망
    - 최근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이 증가함
    - 중국의 산업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 서울시 발주 공사장 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 등 최근 국내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형 기계 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제품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과 첨단기계 기술 격차 축소) 중국의 기계 기술력 강화로 기술 경쟁 및 글로벌 시장 내 제품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최근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던 기계·전자 분야에서 부진하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등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축소됨
    -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및 기계 분야 기술 인력 양성 노력으로 한-중간 기계 기술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임
    - 국내 기술력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계 기술의 빠른 성장으로 범용기술 뿐만 아니라 첨단기계 기술에서도 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 심화가 예상됨

#### 4. 시사점

첫째, 대외 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 경기 회복 경로를 통한 전체 경제 성장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장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 외형적 성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가가치 창출, 생산성 향상, 신성장산업 육성 등 수출 잠재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선진국 시장에서는 높은 품질의 제품 판매와 함께 기술 표준도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접근하여 시장 점유율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소비자 소비패턴 및 선호도 파악, 트렌드 변화, 산업 구조변화 분석 등 정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의 중심축인 미국 및 유럽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
  -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품질 기준 조건을 국제적인 요구 조건에 맞도록 개선할 수 있는 자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
- 성장 잠재력과 수출 경기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야 할 것임
  - 한중FTA 활용, 중국의 소비시장 및 서비스시장 공략 등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경기 회복에 힘써야 함
  - 상대적으로 구매력 증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이란 등의 신흥국에 대한 시장 조사와 맞춤형 마케팅을 이용하여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필요

둘째,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산업 경기 전반의 회복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경기 국면의 위치와 향후 방향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맞춤 대책 필요
- 통화정책은 완화에서 긴축 기조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복원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재정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기금별 추가 지출 소요 발굴,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의 추진도 고려

- 산업별 주력 제품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미시적 차원의 노력도 요구

**셋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향후 예상되는 무역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 및 중국 정부와의 통상 외교 채널을 보다 강화할 필요
-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통상 규제 움직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신속한 확보, 분석,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요구됨
  -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출 공조 시스템구축, 현지 유통·물류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지원 등 다각적인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노력이 요구됨

**넷째, 경기 냉각 우려가 있는 건설업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건설경기 연착륙에 주력해야 한다.**

- 2018년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공급과잉, 금리 상승,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구매심리 악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보임
- 이는 민간 부문 건설수주의 감소 등 건설경기 급랭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부



실화 등으로 인한 금융 부분의 위기, 더 나아가 경제의 실물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주택 부분의 경우 경기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인위적인 부양 대책이나 강도 높은 규제 등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수급의 균형을 통해 안정화 유도
- 정부 예산이 감축되는 토목 등 SOC 부문에서는 민자 유치를 확대하고 해외 건설수주 확보 등을 통해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유지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중장기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

다섯째, 국내외 산업 지형 변화에 대응하고 기존 주력 성장 산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은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소위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주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은 국내 산업 및 경제의 구조개선 뿐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급락은 기존 주력 산업들의 성숙화에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기에, 이제는 미래의 성장 동력 육성 단계를 넘어 투자와 고용이 유인되는 산업화 단계의 신성장 산업이 필요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기술 및 신산업 발굴도 기반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주력 산업들의 공급 사슬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 강구
-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구조조정 정책 추진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시행하여 산업 및 경제 전반의 수급 균형을 도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과 같은 특정 산업 뿐 아니라 타 산업 부문도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책 마련이 중요함

-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주체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차별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의 효율성과 전략성을 강화 **HRI**

2018년 산업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이사대우	(juwon@hri.co.kr, 02-2072-6235)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건설】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ICT 제조】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자동차】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철강】	김수형	연구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석유화학】	박용정	연구원	(yongjung@hri.co.kr, 02-2072-6204)
【조선】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기계】	신유란	연구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